

## 서정주의 “추천사(鞦韆詞) --춘향(春香)의 말 일(壹)”

김옥순(한중일문화연구소 연구원)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 배를 내어 밀 듯이, / 향단아(香丹아)// 이 다  
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벼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 자잘한 나비새끼  
피꼬리들로부터 / 아조 내어밀듯이, 향단(香丹)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 바람이 파도(波濤)를 밀어 올리듯  
이 /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 향단(香丹)아.

(“추천사(鞦韆詞) --춘향(春香)의 말 일(壹)”, 『서정주시선』, 1955)

서정주(徐廷柱, 1915~2000)의 시 “추천사(鞦韆詞)--춘향(春香)의 말 일(壹)”은 유명한  
춘향과 이도령의 연애 이야기<sup>1)</sup>를 다루고 있다. 5월 단옷날 명절놀이로 춘향이 남원 광한  
루에서 그네를 뛰었다. 이도령이 멀리서 푸른 나무 사이로 그네<sup>2)</sup> 뛰던 모습을 처음 보고  
사랑을 느꼈고 연애했던 그 만남의 첫 장면을 모티프로 쓴 시이다. 그네뛰기는 하늘을 향해  
공중을 나르며 아슬아슬한 어지러움과 아찔한 상쾌감을 노리는 놀이이자 운동이다. 그런데  
이 시에는 사랑했던 이 도령은 간 곳 없고 춘향이 혼자 있다. 아니, 몸종인 향단의 도움  
을 받아 그네를 뛰려 한다. 춘향은 향단에게 그넛줄을 밀라고 한다. 춘향이 그네를 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도록 향단이 미는 행위는 1연에서 선원이나 어부가 바다를 향해 배를

1) : 고대소설의 대표작. 판소리 12마당의 하나이다. 조선 영조·정조 전후의 작품으로 추측될 뿐, 작자·연대는 미상  
이다. 《춘향전》은 처음 판소리로 생성되어 나중에 소설로 정착되었고, 다시 원각사(圓覺社) 이후에 창극(唱劇)이 되었으  
며, 그 뒤에 희곡·영화·시나리오·뮤지컬 플레이·오페라의 대본 등, 다양한 장르를 거쳐왔다. 《춘향전》은 판소리이기 때문  
에 민중과 함께 광대(廣大)에 의하여 불리었다. 따라서 판소리가 되기 전에 이미 민간 설화로 유전된 여러 설화가 집성되어  
《춘향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숙종(肅宗) 이전의 연대를 가진 야담(野談)에 《춘향전》의 일부와 내용을 같이하는 것으로 암행어사설화(暗行御史說話)·  
염정설화(艷情說話) 등이 20여 종이나 된다. 그러므로 《춘향전》은 이와 같은 설화들이 가진 종합적인 러브 스토리를 하  
나로 응집시켜, 광대 시창자(始創者)가 이를 구성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 그만큼 《춘향전》의 줄거리는 단순하기  
때문이다. 《춘향전》의 구조로 따져볼 때 그것은 《춘향전》과 《이어서전(李御史傳)》과의 합성으로 보인다. 남원부사(南  
原府使)의 아들 이몽룡과 퇴기(退妓) 월매(月梅)의 외동딸 춘향이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이도령의 아버지가 서울로 옮기게  
되어 두 사람은 이별의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 이 때 새로 부임한 남원부사 변학도(卞學道)는 수청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향을 옥에 가두고 고초를 받게 하여 사경(死境)에 빠뜨린다. 서울로 간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  
온다. 부사의 생일 잔칫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쾌하게 어사 출포를 하여 부사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해내  
어 백년을 해로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줄거리는 여러 종의 《춘향전》 사본에서는 대개 같으나 그 세목이 사뭇 달라지는데 이것은 《춘향전》이 판소리  
로, 판소리라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춘향의 신분도 애초에는 기생으로부터, 성참관(成參判)이  
나 성천총(成千總)의 서녀(庶女)로 되기도 하였으니 이는 《춘향전》이 양반들의 구미에 맞게 변질된 과정이기도 하다. 판  
소리 생성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춘향전》이 민중의 갈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문학적 중량감은 《구운몽(九  
雲夢)》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춘향과 몽룡의 계급을 초월한 사랑, 특권계급의 전횡(專橫)을 대표하는 변학도와 이에  
대한 평민들의 저항, 특히 변학도에 항거하여 이도령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춘향의 모습은 모순을 내포하면서도 상승을 회  
구하는 조선 후기 민중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도령이 극적으로 내려와 변학도를 응징하는 모습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민중의 꿈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자아의 신장과 꿈의 형상이 조선 후기 민중들에게 갈구되는 새로운 시대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열렬히 환  
영받았고, 춘향의 수절이 당시의 봉건윤리에도 합치되었기 때문에 양반이나 하층민 누구에게나 영합되는 국민문학적 폭을  
지니고 있어 민중 최고의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의 이본(異本)은 외국어로 번역된 것까지 합치면  
무려 70~80여 종이나 된다. (네이버 백과사전)

2) 그네뛰기: 5월 단오에 젊은 여인들이 그네를 뛰면서 즐기는 놀이. 그네뛰기는 나뭇가지나 두 기둥 윗부분에 가로지른 나무  
에 길게 두 줄을 매어 늘이고, 줄 아래에 밀신개(앉을개)를 걸쳐 놓고 올라가서 몸을 날려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났  
다가 하는 놀이이다. 한자어로는 추천회(鞦韆戲), 반선희(半仙戲), 유선희(遊仙戲)라고도 한다.

미는 행위를 연상시키고, 4연에서는 바람이 파도를 미는 행위로 비유된다. 즉 춘향은 그네뛰기를 통해 지상을 벗어나 바다나 하늘로 날아가기를 꾀하고 있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이 세상을 떠나려는 데에는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던 이도령 없이 춘향만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느껴진다.

2연에 오면 그네뛰기의 감각적 느낌이 잘 드러난다. 초여름 5월의 푸른 풀꽃 더미 속에서 나비가 날고 꾀꼬리가 우짖는데, 물오른 수양버드나무에는 그네가 매어져 푸른 나뭇잎이 흔들리는 계절감이 감각적으로 선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 보면 단순히 5월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묘사한 것이 은 아님을 알 수 있다(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벼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 아조 내어밀듯이, 향단(香丹)아) 즉 묘사된 자연은 실제의 아름다운 5월 풍경이라기보다 ‘벼갯모’에 수놓인 예술로 변형된 5월 풍경이다. 춘향이 마음껏 발을 구르며 허공을 향해 날았던 그네뛰기의 현실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던 벼갯모의 수공예 작품으로 공간이동을 한다. 5월의 풍경 이미지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동되면서 벼갯모의 수로 축소된다. 단순히 풍경만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그네뒹 때의 어지러움, 현기증, 엑스타시, 심미적 쾌감 등이 베개로 옮겨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연에 보면 춘향은 침실 벼갯모에 수놓인 5월의 아름다운 풍광 속의 그네뛰기에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로, 지상을 아주 벗어나려 하고 있고, 4연에서는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 구도자<sup>3)</sup>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

춘향이 달처럼 되려 하는데 달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낸다. 즉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는 존재로 상징된다. 둘째로는 달이 바다의 조수(파도)에 영향을 준다. 달이 보름달로 가득차서 그믐달로 기울고, 기울었다가 다시 차면서 사흘 동안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어 버린다. 달이 사흘 간 사라짐은 흔히 죽음으로 비유한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 달은 죽음(death)과 재생(rebirth)을 끝없이 이루어가는 존재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춘향은 달처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로 가고자 하거나 지상을 떠나 서방정토로 가는 구도자의 해탈문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창 젊고 아름다운 나이의 처녀가 왜 그럴까? 그것은 춘향과 이 도령의 연애담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다. 춘향이 5월 단오에 이 도령을 만나 사랑의 흔들림을 맛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분상의 격차를 넘어설 수 없어 이 도령과 이별해야 했고, 한편으로 남원 사또로서 한 고을을 쥐고 있는 권력자, 변 사또의 수청 강요가 있었다. 감옥에 갇혀 살아서 수청을 듣느냐, 죽어서 정절을 지키느냐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시험당하게 됐다. 이때 춘향은 삶(변사또 선택)보다는 오히려 죽음(이도령 선택)을 택한다. 서정주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김영랑, 박재삼 등) 춘향의 이런 생사 결단의 순간을 시로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시인은 춘향이 단순히 고통을 못 이겨 죽음을 동경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욕망을 떠나 멀리 목숨과 시간에서 벗어나, 달이 서방정토로 가듯이 해탈의 길을 가고 싶다는 불교적 염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5월 단오날 그네뛰기 하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어지러움은 벼갯모의 수(繡) 조형물과 관련된 성적(sexual)이고 예술적(artistic) 어지러움으로 바뀌고 다시 지상과 현실을 벗어나려는 우주적인 어지러움으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3)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

현실 (5월 단오에 광한루에서 그네뛰기할 때의 본능적 어지러움)



축소 (베갯모의 성적 예술적 어지러움)



확대 (목숨을 초월하는 도 닦음의 신비체험의 어지러움)

이와 같이 시 ‘추천사’는 그네뛰기에서 생기는 현기증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 그네뛰기 장면의 축소인 베갯모에다 그네뛰기 풍경을 수 놓았다는 것은 남녀가 만나 사랑을 처음 느끼고 운우(雲雨)의 정을 나누면서 느끼는 황홀경과 어지러움을 보여준다. 다시 달이 지상을 떠나 구름처럼 파도처럼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로의 비상(飛翔, flying)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어린 춘향이 사랑에 눈 뜨게 되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통하여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신비체험(mystic experience)을 향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